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學校保健 課題

金 命 鎬

延世醫大教授·醫博
學校保健協會理事

1. 學校保健의 歷史的 考察

학교보건 사업의 발전사를 보면 豫防醫學分野의 하나인 小兒保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특별히 學校에 다니는 兒童들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연구와 활동 또는 사업이 개시된 것은 18世紀의 末葉부터 19世紀의 初葉에 걸쳐서 였다.

Johan P. Frank(1745~1821)는 일찌기 學校衛生에 관해서 記錄한 바가 있고 독일의 유명한 病理學者 Rudolf Virchow(1821~1902)는 小兒保健의 增進을 위해서 學校兒童의 신체검사의 必要性을 강조하였다.

學校給食은 獨逸에서 또 英美 兩國에서 처음으로 實施되고 널리 普及되어 學校保健事業의 첫 사업으로 擡頭되었다. 또 健康教育에서 볼 때 1850年 以後로 教育理論이 발전되어 어린이의 要求와 關心이 教育에 있어서 重要視하게 되자 教育計劃의 一環으로서 兒童의 健康要求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學校保健事業은 學校給食, 學校環境衛生으로부터 健康教育으로 比重을 크게 두면서 발전해 왔다. 歐美에 있어서 그 동안의 學校保健의 발전배경을 볼 때 大略 다음과 같은 세 類型으로 나눌 수가 있다.

(1) 19세기 말부터 近代 科學的 醫學 즉 위생학이 개발되고 그것을 基礎로 한 학교위생이 추진되어 教育의 의학적 비판과 학동에 대한 위생적 보호를 學校醫의 主된 任務로 삼아 온 獨逸中心의 類型이 있다.

(2) 社會政策을 중요시하는 英國에서 社會政策的 要求에 따라 社會救濟라는 見地에서 학교

위생의 보급장려를 기도해왔다.

(3) 美國에서는 教育이란 태두리 안에서 새로운 教育體制下의 학교보건을 발전시켜 왔다.

美國에 있어서의 學校保健의 發展史를 다음과 같이 年代的으로 살펴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1) 전염병 관리시대(1890~1910)

학교보건사업의 초창기는 학교에 있어서의 디푸테리아, 성홍열과 같은 학교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2) 의료관찰시대(1910~1920)

일반적으로 국민보건의 향상 특히 환경위생분야의 개선으로 전염병의 발생이 점차 감소되고 세계 제 1차대전의 폭발을 계기로 신체의 결함이 문제가 되었다. 즉 많은 청년이 징병검사에서 신체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事實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학교에 있어서 이러한 결함의 조기 발견과 처치를 목적으로 정기신체검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연차적으로 학생의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이 여러 州에서 입법조치 되고 특히 美國學校保健協會에서는 신체검사의 시행기준을 정하였다.

3) 신체검사시대(1920~1930)

신체검사에 의해서 신체의 결함을 발견한 후이의 교정을 위해서 학생의 보호자와 교사의 參與을 요구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가 시행되었다.

4) 보건교육시대(1930~1940)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결함의 교정 더 나아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건강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5) 의료자문시대(1940~1945)

세계 제 2차대전으로 인해서 많은 교의의 應召로 교의는 부족되고 따라서 한사람의 교의가 여러 학교의 의료자문의 역할을 했던 시대였다.

6) 보건교육 및 의료, 보건상담시대(1946~1968)

학교보건사업은 교육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체계가 서서 보건교육, 건강상담 및 정신보전에 치중하게 되었다. 특히 정신적 문제아동과 신체적 불구아동에 관한 지도에 힘쓰게 되었다. 또 건강교육, 체육 및 오락을 통한 학생의 체위향상에도 노력하게 되었다.

7) 지역사회의학시대(1969~)

지역사회보건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학교보건은 그 일부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늘날 학교보건은 많은 학생수, 좋은 보건교육의 대상으로, 또 교직원들은 지역사회 지도자들 여러가지 이유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보건분야의 타분야에 비해서는 발전의 속도가 느린 편이다.

2. 學校保健에서 當面하고 있는 課題

우리나라에서는 8·15해방후 公衆保健事業이 처음으로 正式으로 수행되기 시작하여 그간 30년간의 노력으로 질병의 예방면, 건강의 증진면 및 수명의 연장면에서 점차 개선과 향상을 거듭해 왔다. 우리의 지역사회에서는 많은 전염병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어린이의 성장과 발육 및 영양상태에 있어서 많은 호전을 보게 되었다. 평균 수명만해도 얼마전에 비해서 20년이나 연장되어 현재는 70세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과제를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보건의 철학의 정립

학교보건의 기본 철학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도의적으로 완수된 학생 더 나아가 시민을 양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건강에 관한 것은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국가적인 전지에서 볼 때 경제개발 제 3차 5개년(1962~19

76)는 경제개발에만 치중해 오던 국가 정책이 제 4차 5개년계획부터는 사회개발 특히 보건, 교육 등에 새롭게 역점을 두고 있는데 학교보건은 이에 호응을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학교보건의 철학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건강하고 능률적인 인간을 양육하는데 무엇보다도 학교에 있어서의 건강정책과 관리가 뚜렷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문교당국은 물론 각급학교에서 보다 바람직한 학교보건계획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즉 인력면, 시설과 장비면, 재정면에서 대폭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수천명의 학생에 대하여 형식적인 교의나 단 1명밖에 안되는 양호교사를 가지고 학생전체의 건강관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능률적이다. 시설면에서도 원시적인 의료 또는 보건시설에 불과하고 재정은 지극히 곤란한 현 실정인 것이다.

그간 민간단체인 한국학교보건협회나 관계분야의 학자 또는 실무자의 건의와 제의가 수 없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린이의 건강은 국가발전 더 나아가 국가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지극히 소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일이다.

(2) 학교보건관계 법령의 개정 및 제정

1967년 학교보건법이 제정·공포된 후 10년이 지났다. 그간 법대로 시행이 안된 부분이 많다. 특히 보건요원의 배치 환경정화구역에 관한 조항 등을 들 수 있다. 또 약간의 개정을 요하는 부분도 있다. 그것보다도 급선무는 학교급식법과 같은 새로운 법의 제정이 긴급히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나 오늘날과 같이 외국에 비해서 급식문제가 많은 곳에서는 강력한 행정을 뒷받침해 주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3) 건강관리의 획기적 변화의 요구

신체검사 규정에 의해서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형식적, 행사적 또는 피상적인 신체검사를 하고 있다. 또 심지어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못하는 학교도 있다 '건강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신체검사는 결과에 대한 추후 처리가 없는 수가 많다.

보다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제대로 건강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일상 관찰을 참고로 한 신체검사가 있어야 하겠고 신체검사의 결과에 대해서 교사, 양호교사 및 학부모간에 있어서 상세한 검토와 협의의 더 나아가 추구처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국민학교의 저학년 때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나 결함이 교정이 안되어 후에 고치는데 큰 수고나 경비를 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교당국의 재정사정 또는 각 학교의 사정이 허락이 되지 않아 학생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힘들 경우 민간단체로 하여금 그 일부를 담당케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교보건협회에서는 그간 학생의 기생충검사 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학생의 건강관리에 공헌한 바가 있다. 이제부터는 예방의학적 견지에서 학생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체기능의 장애를 미리 알기 위해서 제반 건강검사를 하는 일이 권유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心電圖檢査(F.K.G.) 尿檢査를 통한 단백질과 糖의 검출, 혈액검사를 통한 貧血兒의 발견도 하고 있다.

요즘 結核豫防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매년 1회이상 시행하여야 할 X-선 촬영도 시행하지 않아서 학생들 중에는 폐결핵이 뒤늦게 발견되는 수가 적지 않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공부량이 많은 부담이 되고 대학입시의 과중한 부담은 학생 개개인의 일생을 좌우하는 건강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4) 건강교육의 재검토

각급학교에 있어서의 건강에 관한 교육과정의 대담한 개정이 단행되어야 하겠다. 건강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보충할 것이 많다. 즉 인구교육이나 성교육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의해서 많은 연구, 심지어 교육과정까지 작성이 되었으나 실지로 학생교육의 적용에 있어 만족스럽지 못하다. 우리는 눈앞만 볼 수는 없다. 멀리 내다보는 통찰력이 특히 교육행정가들에게 크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변할 것이다.

다음 세대에 건강하게 살아 가는데 필요한 건강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현재 학생들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에 관한 대책, 아직 전근대적인 의료혜택의 미흡 등은 막대한 예산과 시설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의 협력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협력은 국민이 건강에 관해서 풍족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일선 국민학교의 교육시설이 몇몇 특정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있어 발전과 개발면에서 가장 뒤떨어지고 있다는 비평은 자주 받는 일의 하나이다. 구 세대가 20~30년 전의 교육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책상과 결상, 똑같은 교실과 복도 등 별로 발전이 없다. 특히 시청각 기재에 있어서 어느 지역 사회에서나 가장 최신키의 교육기재가 구비되어서 학교교육은 물론 일반 대중교육에도 이용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교육용 TV의 교육가치에 있어서의 토론이 시작된 지 오래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막대한 의원으로 교육방송국이 설립되어 많은 교육내용이 비테오테이프로 제작이 된 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으나 아직도 실지로 학교에서는 이용이 안되고 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은 국가 발전면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하다. 그것은 요즘 격증해 가는 청소년의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범죄사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경제발전은 끝없이 이룩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사회개발도 발맞추어 끝없이 발전되어 갈 것인지 그것은 경솔한 단언을 불허한다. 건강하고 사회에 유익되며 능률적인 인간의 양성이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주인공인 우리들에게 부과된 의무요 책임이 아닐 수 없다.

학교보건 분야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는 수 없이 많다. 우리시대에 알맞고 최선의 건강의 개념과 철학이 우리 학교나 학원에서 구체적 생활과 교육에서 행동화 되어야 하겠다. 기원 2000년에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하겠다는 숭고한 목표를 향하여 온 인류가 돌진하고 이때에 우리도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다.